

월간양돈 창간 19돌을 축하하며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산업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성장산업이나, 사양산업이냐로 나눌 수 있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다. IMF 이전만 해도 양돈산업은 성장산업이고 수출산업으로 빈 돈사에 모두 돼지를 입식해서 돼지고기 수출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외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의욕이 있었기에 그간 양돈산업에 1조6천억원이 투자될 수 있었고, 농업중 수출효자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었다. 6월 21일은 많은 국민들이 실의와 좌절, 분노에 빠진 하루였다. 밤잠을 안자고 네덜란드와 우리나라의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던 국민들이 네덜란드에 5대 0으로 맥없이 무너지는 한국축구를 보고 IMF에 맥없이 무너지는 한국경제를 연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간 우리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적을 이기는데, 상대의 전력도 모르고 내 실력도 모르고 경기를 했으니 백전백패를 당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행히 골키퍼의 선방으로 5개의 실점에 그친 것으로 위로를 삼을 수 밖에 없었다.

감성적으로 “가자 월드컵, 16강이 보인다”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16강이 되는 것이 아님

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화란전 패배로 우리 선수들의 유연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강한 것보다 유연한 것이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씨름에서 체구가 작은 선수가 허리의 유연성으로 덩치 큰 선수를 이기는 장면은 일품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수비선수 대신 막대기를 세워 놓는 것이 낫다는 축구 전문가의 해설은 화란공격 선수의 유연한 몸놀림에 맥없이 넘어지는 우리 수비진을 잘 표현한 말이다. 강한 치아는 빠져도 유연한 혀는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동양의 고전은 이래서 빛을 발하는가 보다. 우리 팀이 고쳐야 할 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유학을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축구는 국민들의 공감대·일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운동이지만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실망만 주고 퇴출당해야 하는 경기종목이 될 수 밖에 없다.

양돈산업의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퇴출산업화 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축구는 국민들의 공감대·일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운동이지만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실망만 주고 퇴출 당해야 하는 경기종목이 될 수 밖에 없다. 양돈산업의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퇴출산업화 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료, 약품, 종돈, 시설기자재 등 거의 대부분의 생산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방역, 분뇨처리 등 비효율적인 낭비요소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유연성의 부족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다.

감성적으로 '가장 가까운 수입시장인 일본이 있으니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자', '일본 수출 3강에 들어가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러한 구호만으로 국내시장이나 또는 일본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면 큰 골 차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감성적인 '수출산업', '성장산업'을 외치기 전에 과학적이고, 수입에 대비한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월간양돈이 이번 7월호로 창간 19주년을 맞게 되었다. 이제 턴에이저를 벗어나 청년기로 접어들려 하고 있다.

그간 광고로 후원하여 주신 광고업체, 집필진, 편집위원, 홍보부 직원들, 인쇄소 제작팀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한숨을 돌릴 틈

도 없이 IMF 한파로 제작비 상승, 업체불황에 따른 광고물량 감소 등 잡지 발간에 지금부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입 돼지고기와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월간양돈의 할 일은 많은데 주변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통해서 더욱 유연해지고 월간지로서의 경쟁력도 키워서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 업계의 약점들을 지적하고 고쳐 나가는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 양돈산업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각종 정보를 가공, 보관, 공급하는 일을 더욱 능률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특히 양돈가족들이 양돈산업을 통시적으로 바라볼수 있도록 항상 여러 위치에서 양돈업계를 조명하여 나갈 것이다.

지난 19년간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養豚**